

新年劈頭에 朝鮮佛敎徒의

覺醒을 促하노라

東京 金 泰 洽

一

일고된 扶桑孤島에 의로히안져서 送舊迎新의 歲換의 節을 當하니 形言할수업는 萬感이 交集한다. 歲月은 호로기싱고 人生은 成事키 어려운지라 希望에 라는듯하든 憧憬도 無反省. 沒自覺. 失敗. 落頭가운데 낙어버리고 悲哀. 懊惱. 歎息만이 만났든舊年을 보내게되었다. 過去一年間에 우리가 질책이루어는成績이 무엇인가함을 도타보면 스사르愧汗이 등어늘기에 호등을 禁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弊疵補短의 自家辯護는 아니지마는 過去一年間에 우리의成績이 우리가 希望하고期待하고 宣言하곤 抱負에比하여 滿足하지못하였다는말이요 決코 아주空虛하였다고함은아니다. 財團法人의 큰事業도 漸次完成의域에 達하게되었고 普成高普도 移轉新築케되야 未久에新校舍의落成을 告하게되었스며 海外留學生으로 말하여도 例年보다 倍數나特派하여 佛敎專攻의英才를 教育시키게되고 布敎堂도 數個所나 新設케되었스니 이만하면 例年에比하여 比較的 成績이良好하다고하겠다.

이것은모다 法城을지키고계시는 諸位께서努力하신結果요 奮闘하신功績이라고생각한다. 海外에在한 吾人은 特히新年을際하여 諸位의清福을祝慶하여야하니한다.

二

그러나 現狀維持 又は少許의發展으로써 自足하여서는아니되리라고잇는다. 勿論 李朝시대와치度僧의法이禁止되고 僧尼의入城이不許되든 그제에比하면 滿足을늦기지아니할수업스나 三國時代에比하면 스사로 恐縮함을 이기지못하겠다.

朝鮮佛敎의起源을 溯究하면 佛敎가 印度로부터 支那를經由하여 朝鮮에傳來한지는 距今一千七百年前에屬한다. 卽高句麗朝였다. 그제로부터 佛敎가 朝鮮에及한影響으로말하면 朝鮮歷史上에 明記하여야잇을筈만아니라 朝鮮에在한 文學·藝術·儀式을通하여 又是官語·思想·遺跡을通하여 昭昭하게詳察되는바이다 喋喋의說을 不要하거나와 新羅·高麗의時代에在한佛敎는 社會的佛敎였다. 民衆的佛敎였다. 그리하여 社會를指導하는者僧侶였스며 民衆을教化하는者僧侶였다. 上은君主로부러下는庶民에이르기까지 國民全體가佛敎에歸依하였었다. 이러한事實은 識者間에 누구나다아는바이나 우리僧侶가 더욱히잘알고 眞히記憶하고잇는바이다.

三

그러하든것이 李朝에드러와서는 形言할수업는暴政이려서 破寺毀釋의 氣에진橫斥을받게되었다. 그래서 聚落의佛敎·市井의佛敎·即民衆의佛敎는 山村으로驅逐을當하고 護法의殘僧은 悲痛抑憤한 歎해 吳楚興亡이 非我所關이라는格으로 遁世의生活을營爲하였다. 이것이 一二十年의事變이라하드레도 말할수업는打撃이라 할것인데 五百年間이나繼續하였습이라 印度佛敎史를보든지 支那佛敎史를보든지 日本佛敎史를보든지 排佛의事變이업는바가아니나 大槪는 一時的이었스며 眞히覺醒이다하드레도 一代에止하고마뻤다. 그렇으므로 盛衰가反覆되야 나리웃을생각려 一時의이

